

프랑스어 속성명사의 통사·의미 속성 연구*

- 프랑스어 속성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

이 성 현
(서울대학교)

■ 차례 ■

- I. 서론
- II. 어휘 기술과 대상부류 구축
- III. 속성명사의 통사·의미 속성
- IV.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
- V. 결론

I. 서론

이 글은 gentillesse, courage, patience, caractère, couleur, poids 등 프랑스어 속성명사 noms de propriété들의 통사·의미 속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이들 속성명사들이 <인식속성 propriétés *identifiantes*>과 <부여속성 propriétés *attributives*> 등 적어도 두 개의 부류로 우선 구분, 기술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

속성명사란 상기 명사들처럼 인간 혹은 사물에 부여된 특성이나 이들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비과정적 non processif 사행¹⁾을 가리키는 술어명사들을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다.

1) 여기서 ‘사행 procès’은 전통적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사행’이 전통적으로는 정태적인 statif 것과 구별되는 과정적인 processif 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말한다²⁾. 그런 까닭에 이들 명사는 *avant*이나 *pendant*과 같은 시간표현이나 *court*, *bref*, *brusque*, *long* 같이 사행의 시간적 전개(혹은 과정성)를 전제하는 표현들과 함께 쓰일 수 없고, 단문 구성 시에 기능동사로 *avoir*를 취하는 등 유사한 통사행태를 보인다.

- (1) a. *Avant* (**sa gentillesse* + **son courage*), je ne l'appréciais pas.
 b. *Pendant* (**sa patience* + **son caractère*), tous ses collègues l'admiraient.
 c. *La* (**courte* + **brève*) couleur plaît à ma nièce.
 d. *Paul* n'a pas supporté le (**brusque* + **long*) poids de ce carton.
- (2) a. *Max* a (de la gentillesse + du courage + de la patience).
 b. *Ma tante* a un sacré caractère.
 c. *Cette cravate* a une couleur éclatante.
 d. *Ce carton* a un poids considérable.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사행태에서 서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2)에서처럼 이들 명사가 모두 기능동사 *avoir*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합양상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2a)의 *gentillesse*나 *courage*, *patience*는 *avoir*와 단독으로 결합하여 주어 논항 *Max*에 속성을 부여해 주는 완전한 단문을 구성할 수 있는 반면, (2b)-(2d)의 속성 명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3)과 (4)에서 볼 수 있듯이, *caractère*는 *avoir*와 단독으로 결합할 때 의미가 달라지고, *couleur*와 *poids*의 경우는 *avoir*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필히 부가사 *épithète*를 동반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술어가 문장층위에서 표상하는 사건 혹은 사태를 지칭한다. 이는 그간 수행된 *procès* 관련 연구들의 성과를 수용한 결과로서, 이런 시각에서는 비과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가 사행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비과정적 사행'이 모순된 개념은 아니라고 하겠다. 사행 관련 연구의 흐름과 그에 따른 개념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uchs, C. (1991:9-17)를 참조.

- 2) *Anscombre*, J.-C. (1995:45)는 상태 *états*를 비과정적 시상 *aspect non processif*을 갖는 사행으로 정의하고, 그중에서도 시간적 지속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영구적이고 구성적인 상태 *états permanent et constitutif*'로 구분하였다. 이 유형의 상태를 표상하는 명사로는 *blondeur*, *minceur*, *gentillesse*, *intelligence*, *méchanceté* 등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속성명사에 속한다.

(3) a. Ma tante a du caractère.

b. =: Ma tante a un fort caractère.

c. ≠ *Ma tante a un caractère.

(4) a. Cette cravate a une couleur (*E + éclatante + ravissante + ...).

b. Ce carton a un poids (*E + considérable + incroyable + ...).

물론, (2a)의 명사 *gentillesse*, *courage*, *patience*도 부가사를 동반하고 기능 동사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가사가 해당 술어명사가 표현하는 속성의 강도를 명시하는 기능만을 하고, 따라서, 대응되는 술어형용사 구문에서 *très*와 같은 정도부사들과 일대일로 대체될 수 있다.

(5) a. Max a un(e) grand(e) (*gentillesse* + *courage* + *patience*).

⇔ Max est très (*gentil* + *courageux* + *patient*).

b. Max a un(e) (*gentillesse* + *courage* + *patience*) *considérable*.

⇔ Max est très (*gentil* + *courageux* + *patient*).

⇔ Max est considérablement (*gentil* + *courageux* + *patient*).

부가사와 부사 사이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2b)-(2c) 명사들의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다. (3)에서 보았듯이, *caractère*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avoir*와 결합할 때 그 문장 의미에 정도의 강함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유형의 명사들이 단독으로는 등가의 형용사 환언문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2a)와 (2b)-(2d)의 명사들을 구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이다. 사실, (2a)의 *gentillesse*, *courage*, *patience*가 구성하는 문장은 각각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형용사 술어 구문으로 환언될 수 있지만, (2b)-(2d)의 명사 *caractère*, *couleur*, *poids*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6) Max a (de la *gentillesse* + du *courage* + de la *patience*).

⇔ Max est (*gentil* + *courageux* + *patient*).

(7) a. Ma tante a du caractère.

⇔ Ma tante est ???.

b. Cette cravate a une couleur (*E + éclatante + ravissante).

⇔ Cette cravate est (??? + ??? + ???).

c. Ce carton a un poids (*E + considérable + incroyable).

⇔ Ce carton est (??? + ??? + ???).

gentillesse류의 명사들과 caractère류의 명사들이 보이는 이러한 통사행태상의 차이는 이들 명사들을 속성명사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두 부류 명사들이 보이는 통사행태의 차이를 잘 반영한, 엄정하고 세밀한 어휘기술을 위해서는 이들을 서로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대상부류 classes d'objets 이론을 방법론으로 삼아 속성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을 기술할 것이다. 즉, 먼저 속성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을 근거로 <속성> 부류를 구축하고 이에 속하는 명사들의 보다 세밀한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속성> 부류의 하위부류로서 <인식속성> 부류와 <부여속성> 부류를 구축할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소개되고 드러났듯이, 대상부류 이론은 특정 의미영역의 대상부류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대상부류의 구축 과정 자체가 바로 어휘들을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그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³⁾.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속성명사 연구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어의 대상부류 구축 과정과 현황, 그리고 관련 쟁점을 살피고 정리한 후 속성명사를 그 통사·의미 속성에 따라 정의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 속성 명사들은 각각의 고유한 통사행태에 따라 구분되는 <인식속성> 명사와 <부여속성> 명사로 구분됨을 보일 것이다. 끝으로 이들 두 부류에 속하는 여러 하위부류들을 소개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속성> 대상부류 구축의 의의를 보일 것이다.

3) 대상부류 이론은 II.2.에서 다룬다. 관련 선행연구는 각주 6), 7), 9), 12)를 참조.

II. 어휘 기술과 대상부류 구축

1. 어휘 기술의 경향 : 통사와 의미의 통합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떤 언어이론에서든 언어현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형식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은 나날이 증대해 왔다. 이는 어휘문법 *lexique-grammaire* 이론이나 대상부류 *classes d'objets* 이론의 틀에서 수행되어온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이론은 최소 유의미 단위는 유리된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단문⁴⁾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술어가 갖는 통사속성, 즉 분포속성과 변형속성을 단문층위에서 기술함으로써 한 언어의 어휘(부)를 구축하고자 한다⁵⁾.

한편 대상부류 이론은 어휘문법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어휘기술 시 의미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완결된 형태의 어휘부 구축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통사정보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정보를 어휘 기술에 제공함으로써 통사정보와 의미정보를 보다 균형적으로 갖춘 어휘 기술을 추구한다⁶⁾. 대상부류 이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따라서, 술어 기능을 하는 어휘이든 논항 기능을 하는 어휘들이든 간에 통사속성과 의미속성을 모두 세세히 밝히고 이에 따라 어휘들을 분류, 기술한다. 즉, 대상부류 이론의 시각에서 특정 언어의 어휘부를 기술, 구축하는 것은 어휘들이 보이는 통사속성에 근거한 의미부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의미부류를 대상부류라고 한다⁷⁾. 우리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 작업의 일환이다.

2.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 현황 및 쟁점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 작업은 파리 13대학 LDI⁸⁾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

4) 이때 단문은 하나의 술어와 그 술어가 요구하는 고유논항들로 구성된다. cf. Gross, M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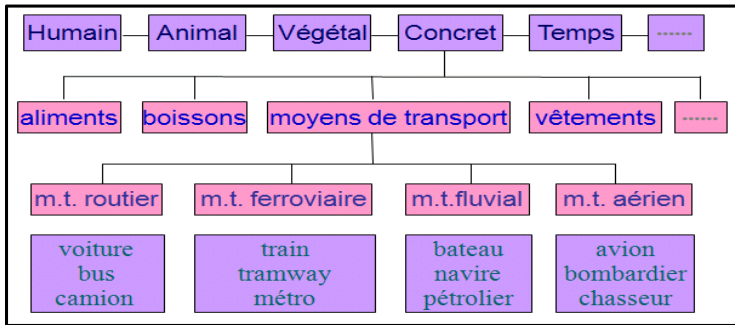
5) Gross, M. (1975, 1981).

6)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 Gross, G. (1992, 1994, 1996, 2012).

7) 대상부류 이론 및 실제 구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ee, S.-H. (2001), 이성현(2001, 2006, 2010) 등을 참조.

8) Lexique, Dictionnaire, Informatique (이전 LLI, Laboratoire de Linguistique Informatique)

행되었다. 그 과정은 '신의미자질 nouveaux traits' 혹은 '대부류 hyperclasses'라 불리는 최상위 부류 10개를 설정하고, 각 부류에 대해 '대상부류 classes d'objets'라 불리는 하위부류를 중층적, 위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⁹⁾. 아래 [표 1]에서 최상위 층위에 나타나는 부류들이 신의미자질들이고 그 아래 층위들에 나타나는 부류들이 대상부류에 해당된다.



[표 1] 프랑스어 대상부류 체계의 구성 예¹⁰⁾

신의미자질은 기존 의미자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비·보완된 10개의 의미부류, 즉 [humain], [animal], [végétal], [concret], [locatif], [temps], [humain prédicatif], [état], [action], [événement] 등을 말하는데¹¹⁾, 이 중 앞의 6개는 비술어 명사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논항의미자질, 나머지 4개는 술어 기능을 하는 문법범주들의 어휘 의미와 관련되는 술어

9) 대상부류 이론의 핵심은 [+animé], [+humain], [concret], [abstrait] 등 그간 술어의 선택제약 기술에 사용되던 이항대립적 의미자질(traits sémantiques)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엄밀하고 형식적인 언어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의미자질들은 형식적이지 못한 정의로 인해 의미영역의 확정이 자의적이고 직관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는 인식 하에 이들을 엄밀한 통사기준에 의해 재정의하여 새롭게 정비한 통사·의미 자질들을 ‘신의미자질 nouveaux traits’ 혹은 ‘대부류 hyperclasses’라 부른다. 한편 신의미자질들을 분할하여 구성되는 여러 층위의 하위부류들은 ‘대상부류 classes d'objets’라 칭한다. cf. Lee, S.-H. (2001) ;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 Gross, G. (1992, 1994, 1996, 2012) ; Guenther, F. (1998).

10) 이 표는 신의미자질과 대상부류의 중층적 위계구조를 보이기 위해 LLI에서 구축된 부류들을 예로 하여 필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cf. 이성현 (2006)

11) 대상부류 이론에서는 의미자질은 ‘[]’, 대상부류는 ‘< >’로 표시함.

의미자질이다. 한편, 대상부류는 신의미자질의 하위부류들로서, 의미자질로는 분할과 인식이 불가능했던 세밀한 의미영역을 표상한다.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은 논항명사로부터 시작하여 술어명사로 확장되었고, 술어명사의 대상부류 구축은 [사건 événements], [행위 actions], [상태 états] 부류의 순으로 수행되었다¹²⁾. [상태] 부류의 대상부류 구축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것은 [상태] 부류에 속하는 술어어휘의 성격이 다른 술어부류의 어휘들에 비해 상당히 비균질적인데 기인한다. 예컨대, *maladie*나 *ivresse*, *fatigue*와 비교해 볼 때 *patience*나 *courage*, *intelligence* 등을 [상태] 사행을 갖는 명사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couleur*, *bleu*, *rouge*나 *direction*¹³⁾, *est*, *ouest*, *sud* 등과 같은 명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형의 명사들이 [사건]이나 [행위] 사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만큼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어휘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부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하위부류들의 이질적 속성들을 밝히는 것이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에서의 쟁점이 된다. 속성명사의 기술 문제는 이렇게 [상태] 부류의 구축 과정에서 제기된다.

Ⅲ. 속성명사의 통사·의미 속성

1. 상태와 속성

상태와 속성을 구별하고 한정하는 문제는 대상부류 구축 시에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술어 어휘들이 표상하는 사행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술어 어휘를 분류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있어왔다. 예컨대, A. Kenny(1963)와 Z. Vendler(1967)는 동사분류를 위해 사행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정태적 *statif* 사행을 상태 *états*로 구별하였고,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A.P. Mourelatos(1981)와 J.-P. Desclés(1989)도 정태성과 시간성(혹은

12) [사건] 부류는 Lee, S.-H.(2001), [행위] 부류는 Eshkol, I.(2002)과 Lamprou, E.(2005), [상태]부류는 Kokochkina, I. (2004)를 참조.

13) 여기서 *direction*은 ‘방향’의 의미로 쓰인 경우를 말함.

지속성)을 기준으로 상태를 동적인 전개를 갖는 사행들과 구분하였다¹⁴⁾. 이들이 상태 사행의 정의에 사용하는 공통적인 기준인 정태성과 시간성(혹은 지속성)은 상태 사행으로부터 속성을 구분해 내는 과정에서도 역시 유효하다.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어휘들 중에서도 역동성(혹은 동태성)과 시간성(혹은 지속성)을 지닌 사행을 지칭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Anscombe (1995:45)는 감정 및 태도 명사의 기술을 위해 상태를 두 개의 하위부류로 구분한다. 영구적/구성적 상태 *les états « permanents et constitutifs »*¹⁵⁾와 우연적/일시적 상태 *les états « accidentels et transitoires »*가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영구적/구성적 상태는 *blondeur, minceur, gentillesse, intelligence, méchanceté*처럼 인간이나 사물들에 부여된 속성들 혹은 이것들에 가해진 판단 들처럼 비역동적(비과정적) 사행을 가리킨다. 반면에 우연적/일시적 상태는 *maladie, ivresse, absence, silence* 등의 명사들이 표상하는 일정한 시간적 지속을 갖는 상태, 즉 역동적(과정적) 사행을 가리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연적/일시적 상태를 표상하는 명사들만이 시간표현과 결합하고 사건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8) a. *Pendant la blondeur de ses cheveux, Léa avait un succès fou auprès des hommes.
 b. *Après la gentillesse, il a changé brusquement d'attitude.
 c. *Avant sa gentillesse, personne n'aimait Pierre.
 d. *Au cours de sa méchanceté, Sam a débiné tout le monde.

14) 이들이 구분하는 사행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A. Kenny (1963) : état / processus / performance
- Z. Vendler (1967) : état / activité / accomplissement / achèvement
- A.P. Mourelatos (1981) : état / processus / développement / occurrences ponctuelles
- J.-P. Desclés (1989) : état / processus / événement

15) 여기서 “permanent”하다는 것은 개념적 속성이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이들 어휘가 언어체계 내에서 균질하고 정태적인 사행이 내적변화 없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시간성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시각에서 Guéron, J. (1993:6)은 aspect를 구성하는 paramètres인 [+/-duratif]와 [+/-borné]로 Vendler(1967)의 동사 사행 분류를 기술하면 état의 경우는 [-duratif]와 [-borné]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기술된다고 보았다. 즉 사행의 지속성(혹은 시간성)이 없으면서도 사행의 경계는 제한되지 않고 열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Anscombe가 말하는 “permanent”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9) a. Pendant sa maladie, Léa ne voyait aucun de ses amis.
 b. A peine après deux minutes de silence, les enfants ont recommencé à faire du bruit dans la classe.
 c. Au milieu du silence général, on entendit un grand bruit.
 d. Durant son ivresse, Marie a raconté sa vie.

또한, 이들 명사들이 일정한 시간 지속을 나타내는 형용사들과의 결합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영구적/구성적 상태를 표상하는 *blondeur*, *minceur*, *gentillesse*, *intelligence*, *méchanceté* 등은 이들 형용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고, 우연적/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maladie*, *ivresse*, *absence*, *silence* 등의 명사들은 결합이 가능하다.

- (10) a. une (*brève + *courte) blondeur
 b. une gentillesse (*prolongée + *durable)
 c. une (*longue + *brusque) minceur
- (11) a. une (brève + longue) maladie
 b. un silence (prolongé + durable)
 c. une (longue + courte) indépendance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Anscombe는 이 두 유형의 상태 사형을 각각 본질적 속성 *propriétés intrinsèques*과 외연적 속성 *propriétés extrinsèques*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Anscombe의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여 본질적 속성만을 속성 *propriétés*으로 칭하고 외연적 속성의 경우는 그대로 상태 *états*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 상태 *états transitoires*의 경우 그것이 과정적 *processif* 성격을 갖는 만큼 속성보다는 상태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속성명사

상태와 속성의 구분과 관련한 논의를 종합하면, 프랑스어 속성명사는 의미

차원에서는 지속적/구성적 상태를 표상하는 사행을 지칭하는 술어명사들로
서 통사차원에서는 (I) N₀ avoir Npréd 구문과 (II) N₀ être prép Npréd 구문
의 Npréd 자리에 나타날 수 있고, 시간 표현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명사들로
정의할 수 있다.

(I) N ₀ avoir Npréd (II) N ₀ être prép Npréd

【표 2】 속성명사의 기본 구문¹⁶⁾

속성명사에는 따라서 courage, patience, gentillesse 등의 인성과 관련된 명
사들은 물론 intelligence, talent, prévoyance와 같은 재능 관련 명사들이 포함
된다. 이들 명사들은 모두가 [표 2] 구문의 Npréd 자리에 나타날 수 있으면서
도 시간 표현이나 사행의 일정한 지속과 전개를 전제로 하는 표현들과는 결
합이 불가능하다.

- (12) a. Max a (de la gentillesse + du courage + de la patience).
 b. Max a un(e) (gentillesse + courage + patience) considérable.
 c. Max est d'un(e) (gentillesse + courage + patience) considérable.
- (13) a. sa (*brève + *courte) gentillesse
 b. sa patience (*prolongée + *durable)
 c. le (*long + *brusque) courage de Max
- (14) a. *Juste après sa gentillesse, Paul m'a grondé.
 b. *Pendant sa patience, il ne disait aucun mot.
 c. *Avant son courage, Max avait peur de son prof.

이러한 인성 및 재능 관련 명사들 외에도 사람의 외모와 관련된 명사
beauté, minceur도 속성명사에 포함된다.

16) 여기서 Npréd는 술어명사(nom prédicatif)를 뜻하고 Prép는 전치사를 칭한다.

- (15) a. Léa a de la (beauté + ?minceur).
 b. Léa a une (beauté + minceur) surprenante.
 c. Léa est d'une (beauté + minceur) surprenante.

- (16) a. sa (*brève + *courte) beauté
 b. sa minceur (*prolongée + *durable)

- (17) a. *Au cours de sa beauté, Léa est allée voir son ami.
 b. *Avant sa minceur, Max n'a presque rien mangé.

뿐만 아니라 사물의 속성과 관련된 couleur, forme, longueur, poids 등의 명사들도 속성명사의 통사행태를 보인다. 즉 이들 명사들도 [표 2] 구문에 나타나면서도 시간표현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 (18) a. La robe de ma sœur a une couleur éclatante.
 b. La robe de ma sœur est d'une couleur éclatante.

- (19) a. Ce jardin a une forme carrée.
 b. Cette fenêtre est d'une forme triangulaire.

- (20) a. une (*brève + *courte) couleur
 b. une forme (*prolongée + *durable)

- (21) a. *Pendant sa couleur éclatante, cette robe plaisait à Léa.
 b. *Avant sa forme ronde, ce jardin était triangulaire.

이 외에도 정태성과 비과정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는 많은 유형의 추상명사들이 속성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인간의 식별이나 외모와 관련된 nom, nationalité, profession, métier, mine, physionomie, air, apparence, figure 장소의 외관이나 위치와 관련된 paysage, adresse, direction, 또는 관계를 지칭하는 relation, lien, 방법과 관련된 méthode,

manière 등이 속성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IV.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

1. 인식속성과 부여속성

속성명사가 상기한 통사·의미 속성을 공유하는 술어명사로 정의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든 속성을 공유하는 균질한 집합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들 속성명사들은 그들이 지칭하는 속성의 유형에 따라 우선 두 개의 하위부류로 구분된다. 사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속성명사 정의의 기준에 따르면, courage나 gentillesse 외에도 caractère나 couleur, poids, longueur 같은 명사들과 nom, nationalité, paysage 등도 속성명사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명사의 통사행태는 앞의 두 명사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caractère 명사는 [표 2]의 (1) 구문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때의 의미는 더 이상 중립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신 (22)에서처럼 기능동사 avoir가 마치 강제시상 기능동사 support aspect intensif인양 caractère명사가 지칭하는 속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2) a. Max a du caractère.

b. =: Max a un (fort + sacré) caractère.

이는 동일한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courage와 gentillesse가 각각이 표상하는 속성의 존재를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23) a. Max a (de la gentillesse + du courage).

b. ≠ Max a un(e) grand(e) (gentillesse + courage).

즉 (23a)와 (23b) 사이에는 의미상의 차이, 정확히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대응되는 형용사 구문에서 정도 부사 très의 존재 여부로 확인된다.

(24) a. Max a (de la gentillesse + du courage).

b. ⇔ Max est (gentil + courageux).

(25) a. Max a un(e) grand(e) (gentillesse + courage).

⇔ Max est très (gentil + courageux).

한편, couleur, poids, longueur의 경우는 [표 2] 구문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부가사 형용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gentillesse나 courage류의 속성명사들과 차이를 보인다.

(26) a. La robe de Léa a une couleur (*E + éclatante + ravissante + ...).

b. Ce paquet a un poids (*E + important + considérable + ...).

c. Cette voiture a une longueur (*E + importante + considérable + ...).

뿐만 아니라, 이들 명사들이 표상하는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술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27) a. Max a du caractère.

⇔ Ma tante est ???.

b. La robe de Léa a une couleur (*E + claire + foncée).

⇔ La robe de Léa est (??? + ??? + ???).

c. Ce paquet a un poids (*E + considérable + incroyable).

⇔ Ce paquet est (??? + ??? + ???).

d. Cette voiture a une longueur (*E + importante + considérable).

⇔ Cette voiture est (??? + ??? + ???).

또한 이들 명사들과 함께 나타나는 부가사가 설령 정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가사가 (25)에서처럼 très와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들같은 크기명사의 경우는 결합하는 부가사가 정도의 높음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대응되는 형용사 술어가 très와 결합하지 않고

쓰일 수도 있기¹⁷⁾ 때문이다.

- (28) a. Cet album a une épaisseur importante.
 ⇔ Cet album est (E + très) épais.
- b. Cet étang a une profondeur importante.
 ⇔ Cet étang est (E + très) profond.
- c. Ce fil a une longueur importante.
 ⇔ Ce fil est (E + très) long.
- d. Cette colline a une hauteur importante.
 ⇔ Cette colline est (E + très) haute.

이러한 차이가, 그렇다고 해서, caractère, couleur, poids, longueur 등이 인
 간이나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6)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명사가 결합하는 부가사들은 어떤
 특정 속성들을 새로운 정보로 제공하기 보다는 이들 명사들에 의해 표상되는
 속성들에 대해 그 정도 degré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이
 다. 즉, (26a)-(26c) 문장들은 모두가 주어의 속성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들이
 고 그 속성은 각각 couleur, poids, longueur에 의해 표상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 명사들이 속성을 표상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들이 표상하는 속성
 이 courage나 gentillesse가 표상하는 속성과 다를 뿐이다. 문제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술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성을 인식속성 propriétés identifiantes
 과 부여속성 propriétés attributives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인식속성이란
 명사 caractère, couleur, poids, longueur처럼 말하고자 하는 속성의 유형을
 한정해주는 속성들을 말한다. 한편, 부여속성은 courage나 gentillesse,
 patience처럼 그 자체가 대상이 갖는 속성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식속성의 속성값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식속성
 은 문제가 되는 대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속성들로서 언급할
 속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 문장 상에 나타나는 속성이고 부여속성은 해당

17) Le Pesant, D. (1996:59) 참조

속성의 유무에 대한 정보 자체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되는 속성이다.

caractère, couleur, poids, longueur가 avoir나 être 등의 기능동사구문에 나타날 때면 늘 부가사를 필요로 하는 점, 그리고 대응되는 술어형용사들이 존재하지 않은 점은 바로 이들 명사들이 갖는 인식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인식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대부분 적정명사 noms appropriés 혹은 분류명사 noms classifieurs¹⁸⁾로 분석되던 명사들로서 크기 명사 noms de grandeur¹⁹⁾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인간이나 사물의 식별과 관련된 속성명사(nom, nationalité, profession, métier), 인간의 외모(mine, physionomie, air), 장소(paysage, adresse)나 관계(relation, lien) 등도 대부분 인식속성명사들로 분석될 수 있다.

2.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의 통사속성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는 각각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I) 부가사와의 공기 co-occurrence 필요성 여부
- (II)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형용사 술어의 존재 여부
- (III) 의문문의 유형 : comment 의문문 vs quel 의문문

【표 3】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의 구분 기준

1) 부가사와의 공기 co-occurrence 필요성

인식속성은 언급하고자 하는 대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속성들로서 이를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서술작용이 완료되지 않는다. 인식속성이 관여하는 문장의 서술작용은 환기된 인식속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으로써만 완성된다. 그런 까닭에, 인식속성명사들이 나타나는 기능동사구문에서는 부가사 형용사가 술어명사와 공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인식속성명사들이 이러한 통사행태를 보인다.

18) Giry-Schneider, J. (1996:7-8) 참조.

19) Le Pesant, D. (1996) 참조.

- (29) a. Cette maison a une couleur (*E + crue).
 b. Ce colis a un poids (*E + important).
 c. Cette voiture a une (*E + belle) longueur.
 d. Ce livre a un volume (*E + important).
 e. Ce spectacle a une (*E + longue) durée.
 f. Cette montagne a une (*E + haute) altitude.
 g. Cette boîte a une forme (*E + carrée).

부여속성명사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제약이 없이 기능동사구문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부가사를 동반하거나 부가사 없이 단독으로 기능동사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 (30) a. Max a (de la gentillesse + de la modestie + de la sagesse).
 b. Max a une grande (gentillesse + modestie + sagesse).
 c. Max est d'une (gentillesse + modestie + sagesse) admirable.

- (31) a. Marie a (de l'élégance + de la sobriété + de la vertu).
 b. Marie a une grande (élégance + sobriété + vertu).
 c. Marie est d'une (élégance + sobriété + vertu) inouïe.

2)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형용사 술어의 존재 여부

인식속성이 서술작용의 대상이 되는 속성을 도입, 한정하는 기능을 하고 따라서 단독으로는 서술작용을 완성할 수 없어서 부가사와의 결합한다는 것은, 결국 인식속성명사와 부가형용사의 의미와 기능이 일종의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식속성명사와 술어형용사 간의 불균형적인 대응관계를 설명해준다.

사실, 인식속성명사와 부가형용사가 결합하여 표상하는 부여속성을 인식속성명사나 부가형용사가 단독으로 표상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위의 예 (29)가 보여주듯이 인식속성명사가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사가 속사의 위치에 단독으로 나타나서 '인식속성명사+부가사' 연

왜가 표상하던 부여속성을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 (32) a. Cette maison a une couleur crue.
 ⇔ *Cette maison est crue.
 b. Ce colis a un poids important.
 ⇔ ? Ce colis est important.²⁰⁾
 c. Cette voiture a une belle longueur.
 ⇔ ? Cette voiture est belle.
 d. Ce livre a un volume important.
 ⇔ ? Ce livre est important.

물론 구체적인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 인식속성명사 없이 부가형용사 단독으로 ‘인식속성명사+부가사’ 연쇄의 의미를 표상할 수 있다.

- (33) a. Cette maison est de couleur (bleue + rouge + verte + violette).
 ⇔ Cette maison est (bleue + rouge + verte + violette).
 b. Paul a la nationalité (française + anglaise + canadienne).
 ⇔ Paul est (français + anglais + canadien).

하지만, 인식속성명사와 형태적으로 파생관계에 있는 술어형용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가사의 자리에 나타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식속성명사만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 (34) a. Ce train est long.
 ⇔ Ce train a une longueur (*E + *longue + importante).
 b. Ce livre est épais.
 ⇔ Ce livre a une épaisseur (*E + *épais + importante).

20) 이 경우 important이 다른 의미, 즉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 용법으로는 비문이 되지 않으므로 ‘?’표 하나만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인식속성명사와 관련되는 술어형용사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바로 이점이 인식속성명사가 속성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하는 술어형용사와 인식속성명사에 대응되는 술어형용사의 부재를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반면, 부여속성명사들은 그 자신이 대상에 대한 속성을 부여하는 서술작용을 담당하는 까닭에 부여속성명사 대부분은 그에 대응되는 술어형용사들을 갖는다.

- (35) a. Max a (de la gentillesse + de la modestie + de la sagesse).
b. ⇔ Max est (gentil + modeste + sage).

3) 의문문의 유형 : comment 의문문 vs quel 의문문

인식속성 명사들은 그 속성과 관련한 구체적 답을 얻고자 구성하는 의문문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때 의문사는 QUEL이다.

- (36) a. Quel est (??E + le poids de) ce colis ?
[⇔ Ce colis pèse 2 kg.]
b. Quelle est (??E + la longueur de) cette voiture ?
[⇔ Cette voiture mesure 1,50 mètre.]
c. Quel est (??E + le caractère de) Paul ?
[⇔ Il est gentil.]

(36)에서처럼 의문사가 속사위치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문사가 인식속성 명사의 한정사 위치에 나타나는 의문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

- (37) a. Quel poids a ce colis ?
[⇔ Ce colis pèse 2 kg.]
b. Quelle longueur a cette voiture ?
[⇔ Cette voiture mesure 1,5 mètre.]
c. Quel caractère a Paul ?
[⇔ Il est gentil.]

또한, 크기명사들의 일부는 의문사 combien과 결합하여 의문문을 구성하

기도 한다.

- (38) a. La largeur de cette rivière est de combien ?
 b. Le poids de ces bagages est de combien ?
 c. De combien est la hauteur de cet immeuble ?

물론, 의문사 *comment*을 취하는 의문문의 답으로 인식속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답 문장에 나타나는 술어명사는 인식속성명사가 아니라 여전히 부여속성명사이다. 즉 주어와 관련된 정보 획득을 위해 인식속성명사의 출현없는 의문문을 구성할 경우 이 의문문은 *comment*을 의문사로 취한다. 그때의 답으로는 다양한 부여속성을 밝히는 문장이 나타난다.

- (39) Comment est ce sac ?
 [⇒ Ce sac est (joli+grand+cher+lourd + de 2 kg +...).]

한편, 부여속성명사가 해당 부여속성과 관련한 답을 얻기 위해 의문문을 구성할 경우 의문사 *comment*을 취하고 이 의문문에는 부여속성명사가 나타나기 어렵다.

- (40) a. Comment est (E + ?* le courage de) Max ?
 [⇒ Max a du courage.]
 b. Comment est (E + ?* la modestie de) Max ?
 [⇒ Max a de la modestie.]
 c. Comment est (E + ?* la sagesse de) Max ?
 [⇒ Max a de la sagesse.]

부여속성명사들은 또한 *quel*이나 *combien*과 의문문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 (41) a. (*Quel + *Combien) est le courage de Max ?
 [⇒ Max a du courage.]

b. (*Quelle + *Combien) est la modestie de Max ?

[⇒ Max a de la modestie.]

a. (*Quelle + *Combien) est la sagesse de Max ?

[⇒ Max a de la sagesse.]

3.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의 통사·의미적 상관관계

인식속성명사들은 자신이 지칭하는 인식속성에 대한 서술작용을 위해 해당 인식속성에 고유한 다양한 표현들과 결합이 가능하다. 즉, 인식속성과 상관관계를 맺는 다양한 속성을 부여하는 표현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인식속성명사 poids에는 tonne, kilogramme, gramme 등 무게에 고유한 다양한 단위명사들이나 lourd, léger 등의 형용사들이 대응되는데 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빈번히 결합한다.

(42) a. Ce sac est d'un poids de 15 kilogrammes.

b. Le poids de ce sac est de 15 kilogrammes.

c. Ce sac est lourd de 15 kilogrammes.

d. Ce sac pèse 15 kilogrammes.

e. Ce sac pèse (lourd+léger).

이는 인식속성명사 longueur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명사와 상관관계를 맺는 부여속성명사로는 무엇보다도 길이단위를 나타내는 millimètre, centimètre, mètre, kilomètre, mm, cm, m, km 등의 있고, long, court 등의 형용사 술어들도 longueur와 관련된 부여속성을 표현한다. 이들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빈번히 결합한다.

(43) a. Ce fil a 2 mètres de longueur.

b. La longueur de cette planche est de 60 centimètres.

c. Cette table est longue de 150 centimètres.

d. Ce sac pèse 15 kilogrammes.

여기서 크기명사들과 빈번히 결합하는 측정단위명사 noms d'unités de

mesure의 지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사실, 이들은 gentillemse류의 부여속성명사들과는 달리 대응되는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사용되는 데도 제약이 있다.

- (44) a. Ce fil a deux mètres (*E + de longueur).
 b. Ce fil est de (*E + deux) mètres.

하지만, (44b)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단위명사들은 한정사의 자리에 수사를 요구하는 특별한 형태의 부여속성명사로 분석할 수도 있다. 부가사 없이도 수사와 함께 속성부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측정단위명사가 서술할 속성을 도입,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부여속성 명사나 부여속성 형용사들과 상관관계를 맺는 것은 인식속성명사로 forme나 couleu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자신이 지칭하는 인식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값, 즉 부여속성명사 및 형용사들과 상관관계를 맺고 이들과 빈번히 결합한다.

- (45) a. Cette boîte a une forme (triangulaire+carrée+ronde).
 b. Cette boîte est d'une forme (triangulaire+carrée+ronde).
 c. La forme de cette boîte est (triangulaire+carrée+ronde).
 d. Cette boîte est (triangulaire+carrée+ronde).

- (46) a. Cette jupe a une couleur (bleue+jaune+rouge).
 b. Cette jupe est d'une couleur (bleue+jaune+rouge).
 c. La couleur de cette jupe est (bleue+jaune+rouge).
 d. Cette jupe est (bleue+jaune+rouge).

인식속성명사들은 이렇게 자신들과 의미적 상관관계를 갖는 부여속성명사와 부여속성형용사들을 가지고, 이들 부여속성 술어들은 인식속성 명사들에 의해 제한 혹은 도입되는 속성들에 대해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속성)값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인식속성은 명사술어들에 의해서만 지칭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2c)의 *lourd*나 (43c)의 *longue*처럼 인식속성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형용사들도 있다. 사실 여기서 형용사 *lourd*와 *longue*는 각각 (42a)-(42b)의 명사 *poids*나 (43a)-(43b)의 명사 *longueur*와 마찬가지로 중립적 가치의 인식속성인 ‘무게’와 ‘길이’의 의미로 분석될 뿐 *léger*나 *court*와 대비되는 ‘무게가 무겁다’나 ‘길이가 길다’라는 부여속성의 용법으로 분석되지는 않는다. *lourd*와 *long*이 보이는 중의적 용법에 대한 논의는 이들 어휘의 다의성과 관련한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는 까닭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여기서는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들은 각자의 통사행태의 차이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과 이런 점이 속성명사를 <인식속성> 부류와 <부여속성> 부류로 구분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정당화해준다는 점만 다시 한 번 강조하기로 한다.

4. 인식속성 부류와 부여속성 부류 구분의 의의와 전망

이렇게 속성명사를 두 부류로 구분하게 되면 각 부류에 대해 수많은 하위 부류들을 설정할 수 있고, 지금껏 제대로 기술되지 못한 어휘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 [표 4]는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의 구분과 기술 과정에서 구축하게 된 하위부류들의 몇몇 예이다.

- <longueur>-Nom être long/court
ex. : longueur, diamètre, demi-diamètre, longueur totale, largeur, etc.
- <hauteur>-Nom être haut/bas
ex. : hauteur, hauteur des vagues, altitude, degré de hauteur, etc.
- <distance>-Nom être loin/proche
ex. : distance, intervalle, écartement, etc.
- <largeur>-Nom être spacieux/étroit, resserré
ex. largeur, étendue, superficie, etc.
- <grandeur>-Nom être grand/petit
ex. : grandeur, envergure, dimension, volume, etc.
- <quantité>-Nom il y a beaucoup de/peu de
ex. : quantité, quantité de neige, quantité de mouvement, etc.
- <force, énergie>-Nom être fort/faible
ex. : force, énergie hydraulique, pression, pression électrique, poigne, etc.

【표 4】 인식속성명사의 하위부류 예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속성 명사의 하위부류들은 다양한데, 이 부류들은 모두 각 부류에 고유한 적정형용사 및 적정기능동사들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길이 longueur> 부류는 être long/court 나 mesurer/faire x mètres, atteindre x mètres 등의 표현들과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인식속성명사 부류들의 적정 형용사는 해당 인식속성과 상관관계를 맺는 부여속성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예컨대 <높이 hauteur> 인식속성 부류를 특징짓는 적정형용사 haut와 bas는 <높이> 부여속성 부류의 구성성분이 되는 어휘들이다. 똑같이 <길이 longueur>인식속성부류를 특징짓는 적정형용사 long/court는 <길이> 부여속성 부류에 속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인식속성부류와 부여속성부류의 상관관계 리스트를 늘어갈 수 있고, 또 이와 함께 이들 두 부류 간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보다 세밀한 하위부류들의 구성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 두 부류 간의 상관관계를 근거로 <길이>와 관련한 속성부류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다.

- Soit les constructions :
- N₀ avoir Dét Npréd (Adj + *E)
 - N₀ avoir Dét Npréd de X N<unités de mesure>
 - N₀ mesurer Npréd de N1
- Si Npréd ∈ <Pr. identifiantes de longueur>
 ⇔ Adj., N<unités de mesure> ∈ <Pr. attributives de longueur>

【표 5】 <longueur> 속성부류들의 상관관계

이때 [표 5]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상기 세 구문에 나타나는 술어명사 Npréd가 <길이 인식속성> 부류에 속할 경우, 함께 나타나는 부가형용사와 측정단위명사들은 <길이 부여속성> 부류에 속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forme> 관련 두 속성부류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 [표 6]는 <forme>관련 두 속성부류의 예이고 [표 7]은 이 두 부류 설정의 근거가 되는 이들 간의 통사·의미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 Pr. identifiantes de forme > :
 - Noms : forme, apparence, figure, physionomie, air, etc.
- < Pr. attributives de forme >
 - Noms : triangle, carré, rectangle, etc.
 - Adj : rond, long, corné, linéaire, ovale, etc.

【표 6】 <forme> 관련 두 속성부류의 예

- Soit les constructions :
 - N₀ avoir Dét Npréd (Adj + *E)
- Si Npréd ∈ <Pr. identifiantes de forme>
 - ⇒ Adj. ∈ <Pr. attributives de forme>

【표 7】 <forme> 관련 두 속성부류 간의 통사·의미적 상관관계

인식속성부류와 부여속성부류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와 이 두 부류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식속성명사들을 주어 논항과 부여속성 술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제 2층위 술어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부여속성명사들은 술어형용사처럼 그 자신이 문장의 주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제 1층위 술어로 분석된다.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속성명사들의 통사·의미속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속성명사들을 두 개의 부류, 즉 인식속성명사와 부여속성명사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들 두 속성명사 부류 간의 통사·의미적 상관관계도 아울러 보였다. 즉, 인식속성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성을 한정해 주는 속성인 반면 부여속성은 말하고자 하는 속성이 어떤 것인지 명시해 주는 속성임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차이를 보이는 이들 두 부류의 명사들이 통사행태

상에서도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즉, caractère와 poids 같은 인식속성명사들은 N₀ avoir Dét Npéd Adj나 N₀ être de Dét Npéd Adj의 Npéd 자리에 나타나는 반면 courage나 patience 같은 부여속성명사들은 Adj의 출현이 없는 N₀ avoir Dét Npéd의 Npéd 자리에 나타남을 보였다. 속성명사를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함으로써 이 두 부류 간의 통사, 의미적 상관관계도 아울러 밝힐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유형의 명사들을 이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구분·기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기술하지 못했던 많은 추상명사들을 프랑스어 대상부류 구축의 틀 안에서 관련 형용사 및 동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노윤채 (1999), 「기능동사와 서술명사에 대하여」, 『한국불어불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17-229.
- 이성현 (2001), 「전자사전 구축을 위한 언어기술의 한 방법 : 대상부류」, 『언어학』 제30호, 한국언어학회, 185-206.
- _____ (2006), 「불어 ‘대칭’ 명사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연구 : ‘대칭’ 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인문논총』 5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7- 332.
- _____ (2010), 「프랑스어 발화명사의 통사의미 속성에 관한 연구 : 프랑스어 발화명사의 대상부류 구축」, 『프랑스어문교육』 제33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357-388.
- Anscombre, J.-C. (1995), “Morphologie et représentation événementielle : le cas des noms de sentiment et d'attitude”, *Langue française* 105, Paris: Larousse, 40-54.
- Bonnard H. (1993), “Identité et propriété”, *L'Information grammaticale* 58, Paris: L'Information grammaticale, 3-5.
- Cordier, F. et François, J. (2002), *Catégorisation et langage*, Paris: Hermès Science Publications.
- Flaux, N. & Van de Velde, D. (2000), *Les noms en français: esquisse de classement*, Paris: Ophrys.
- Fuchs, C. (1991), (éds) *Les typologies de procès*, Paris: Klincksieck.
- Giry-Schneider, J. (1991), “Noms de grandeur en avoir et Noms d'unités”, *Cahiers de Grammaire* 16, Université de Toulouse-Le Mirail, 27-49.
- _____ (1996), “Sélection et sémantique : problèmes et modèles”, *Langue française* 105, Paris: Larousse, 5-14.
- Gross, G. (1992), “Forme d'un dictionnaire électronique”, *L'environnement traductionnel*, Sillery/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u Québec, 255-272.
- _____ (1994), “Classes d'objets et description des verbes”, *Langages* 115, Paris: Larousse, 15-30.
- _____ (1996), “Prédicats nominaux et compatibilité aspectuelle”, *Langages* 121, Paris: Larousse, 54-72.
- _____ (2012), *Manuel d'analyse linguistique. Approche sémantico-syntaxique du lexique*, Villeneuve d'Ascq: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Gross, M. (1975), *Méthodes en syntaxe*, Paris: Hermann.
- _____ (1981), “Les bases empiriques de la notion de prédicat sémantique”, *Langages*

- 63, Paris: Larousse, 7-52.
- _____ (1998), “La fonction sémantique des verbes supports”, *Travaux de linguistique* 39, Bruxelles: Duculot, 25-46.
- Guenthner, F. (1998), “Constructions, classes et domaines: concepts de base pour un dictionnaire électronique de l’allemand”, *Langages* 131, Paris: Larousse, 45-55.
- Guéron, J. (1993), “Introduction”, *Langue française* 100, Paris: Larousse, 3-13.
- Le Pesant, D. (1996), “Vocabulaire des prédicats de grandeurs et des noms d’unités de mesure”, *Les Cahiers de Grammaire* 21, Université de Toulouse, Toulouse: Le Mirail, 45-74.
- Lee, S.-H. (2001), *Les classes d’objets d’événements. Pour une typologie sémantique des noms prédictifs d’événement en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LLI, Univ. Paris 13.
- _____ (2003), “Some Problems in Constructing Semantic Classes for Korean Predicate Nouns”, *Language Research Special Issue*, Seou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NU, 77-93.
- _____ (2009), “A propos des noms de propriétés en coréen”, *Current Issues in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s*,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Le Pesant D. & Mathieu-Colas, M. (1998), “Introduction aux classes d’objets”, *Langages* 131, Paris: Larousse, 6-33.
- Péchoin, D. (1992), *Thésaurus*, Paris: Larousse
- Vivès, R. (1983), *Avoir, prendre, perdre: construction à verbe support et extensions aspectuelles*, Thèse de troisième cycle, LADL, Université Paris VIII.

■ Résumé ■

Etude de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des noms de *propriété* en français :
construction de leurs classes d'objets

LEE Seong Heon

Le présent article se propose de mettre en évidence le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des noms de propriété en français comme *courage*, *gentillesse*, *patience*, *caractère*, *couleur*, *poids*, etc. et de montrer la nécessité de répartir ces noms en deux groupes : noms de propriétés «identifiantes» et noms de propriétés «attributives». Les premiers, qui sont du type *caractère*, *couleur* et *poids*, permettent de cerner le type de propriétés dont on veut parler, alors que les seconds, représentés par les noms du type *courage*, *gentillesse* et *patience*, «parlent» eux-mêmes des propriétés. Pour justifier cette idée, nous mettons en lumière la différence des comportements syntaxiques de ces deux types de noms : les noms de propriétés «identifiantes» peuvent apparaître en position de Npréd dans la construction N_0 avoir Dét Npréd (Adj + *E) alors que ce n'est pas le cas pour les noms de propriétés «attributives» ; ceux-ci peuvent apparaître en effet en position de Npréd dans la construction N_0 avoir Dét Npréd cette fois-ci sans être accompagnés par Adj. épithète. Par ailleurs, les noms de propriétés «identifiantes» se différencient des noms de propriétés «attributives» par leur manque d'adjectifs équivalents. Autrement dit, ils ne disposent pas des adjectifs qui leur permettraient de se paraphraser en construction adjectivale alors que les noms de propriétés «attributives» le font. Les noms des deux classes se distinguent finalement en fonction de leur combinaison avec *comment* ou bien *quel* pour composer une phrase interrogative : les «identifiantes» se combinent avec *quel* tandis que les

«attributives» se combinent avec *comment*. Après avoir mis en évidence le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respectives de ces deux types de noms, nous montrons aussi leurs diverses sous-classes et, ce faisant, nous révélons également leur corrélation syntactico-sémantique : si, dans la construction N_0 avoir *Dét Npréd Adj*, *Npréd* relève de la classe <Pr. identifiantes de X>, *Adj.* appartient à la classe <Pr. attributives de X>.

주제어 : 속성명사(noms de propriété), 인식속성(propriétés identifiantes), 부여속성(propriétés attributives), 술어명사(noms prédictatifs), 크기명사(noms de grandeur)

* 논문 투고일: 2013년 10월 15일 *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11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12일